

한국사 OX 문제편

제1편 선사시대의 전개와 국가의 형성

- 주먹도끼와 가로날도끼 등 아슐리안형 석기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다.()
 - 구석기 사람들은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았다. ()
 - 암사동 선사 유적지는 신석기 때의 유적으로 취사와 난방을 위해 움집 중앙에 화덕을 설치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. ()
 - 신석기 시대에는 갈아서 만든 석기가 널리 사용되었고, 빗살무늬 토기가 주로 제작되었다. ()
 - 신석기인들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씨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.()
 - 신석기에는 스페르갠을 처음으로 사용했다.()
 - 청동기인들은 고인돌과 선돌 등의 거석 기념물을 세웠다.()
- 청동기에는 주로 청동기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다. ()
- 청동기에는 많은 취락들이 구릉에 위치하고, 여러 가지 방어 시설이 만들어졌다.()
 - 청동기에는 산을 등지고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살았다.()
 - 독무덤은 철기 시대의 양식이다. ()
 -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, 반량전, 오수전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.()

- 청동기에는 정치 권력이나 경제력에서 우세한 부족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, 주변의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정복하고 공납을 요구하였다.()
- 고조선은 왕 아래 상, 대부,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. ()
- 고조선이 멸망한 것은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났고 남방의 진이 중국과 직접 통교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. ()
- 위만이 집권한 이후 법 조항이 60여 조로 증가하고, 연나라와 요서 지역을 경계로 대립하였다. ()
- 고조선에서는 철을 많이 생산하여 낙랑, 왜 등에 수출하였다. ()
- 삼한의 제천 행사는 오늘날 남부 지방의 솟대 신앙으로 계승 되었다.()
- 삼한과 고구려에서는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.()
- 삼한에서는 천군이 소도에서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. ()
- 옥저에서는 죽은 사람의 뼈를 추려 가족의 공동 목곽에 안치하였다. ()
- 옥저는 중국과 우호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다가 선비족의 침략을 받고 쇠퇴하였다.()
- 부여에서는 수렵 사회의 전통을 반영한 제천 행사를 거행하였다. ()
- 고구려에서는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을 꺼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을 행하였다.()
- 부여에서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우마로 배상하였다. ()
- 부여에서는 여(뿔)자나 철(凸)자 모양의 집을 많이 짓고 살았다.()

-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있었고,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다.()
- 부여는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,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. ()
- 고구려의 지배층 사이에는 형사취수제와 서옥제의 혼인 풍습이 있었다.()
- 동예에는 중소 군장의 지배를 받는 최하층 천민인 하호라는 집단이 있었다.()
- 동예에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,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.()
- 삼한에서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과 그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가 있었다.()
- 고조선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하게하고, 질투하는 아내는 죽였다. ()

제2편 정치

제1장 고대의 정치

- 백제는 시조가 고구려로부터 내려왔으나, 성왕 때에 부여 계승을 표방하며 국호를 바꾸었다. ()
- 고구려는 정복지 통치에 그곳의 토착 지배층을 이용하였다.()
- 백제의 동성왕은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어 이찬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. ()
- 백제 고이왕 때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,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다.()

- 백제의 성왕은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. ()
- 백제에서는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하였다. ()
- 백제의 무령왕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. ()
- 무령왕릉이 만들어진 문화적 배경은 양나라에 파견된 사신 그림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. ()
- 백제의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. ()
-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와 연합하여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 곧 신라에게 빼앗기고, 자신도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말았다.()
- 성왕은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 정비하고, 수도를 5부로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.
- 근초고왕 때 고국원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황해도 지역에서 고구려와 대치한 탓에 고구려는 백제의 중국 외교를 방해하며 백제를 압박하였다.()
- 6세기 백제는 고구려의 압박에 시달려 북위에 군사적 원조를 요청하였다. ()
- 호우명그릇은 신라의 금관가야 병합을 알려주는 사료이다.()
-고구려와 신라의 우호관계를 알 수 있는 사료이다.
- 고구려 소수림왕은 부족적 5부를 행정적 5부로 개편하여 부족장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켰다. ()
-고국천왕에 관한 설명이다.
- 소수림왕은 율령의 반포, 불교의 공인, 태학의 설립을 통해 중앙 집권 국가로 체제를 강화하려 하였다.()

- 고구려 영양왕 때에는 수나라 문제와 양제가 이끄는 대군을 거듭 물리쳤다.()
- 신라는 중국의 남북조와 각각 외교 관계를 맺고 실리를 추구하였다. ()
 -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다.
- 고구려는 국가 체제 정비를 위해 도읍을 평양으로 옮긴 후에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. ()
- 신라의 지증왕은 순장을 금지하고, 농사짓는 데 소를 이용하도록 하였다. ()
- 광개토대왕의 원정으로 인해 전기 가야 연맹이 약화되어 낙동강 서쪽 지역으로 축소되었다. ()
- 금관가야는 6세기 초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.()
- 대가야는 백제에게, 금관가야는 신라에게 각각 멸망당하였다.()
- 가야는 일찍부터 벼농사를 짓는 등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풍부한 철의 생산과 해상 교통을 이용하여 낙랑과 왜의 규슈 지방을 연결하는 중계 무역이 발달하였다.()
-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연맹 왕국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.()
- 광개토대왕 시절 대가야는 백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신라와 대결할 만큼 성장했다. ()
- 대가야는 백제의 세력이 위축된 5세기 이후에 농업에 유리한 입지 조건과 제철(製鐵)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떠올랐다. ()
- 신라의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. ()

- 신라의 진흥왕은 병부의 설치, 공복의 제정을 통하여 통치 체제를 다지고 골품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.()
-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빼앗고,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으며,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.
- 신라의 태종 무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하고 고구려와 백제유민을 포섭하는 정책을 폈다.()
- 신라의 신문왕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였다. ()
- 신문왕 지급된 관료전은 관리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었다.()
- 신라에는 말갈족을 포함한 9서당이라는 군대가 있었다.()
-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에 경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천도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. ()
- 발해는 신라와는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을 해소하려 하였다. ()
-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였다.()
- 발해 무왕은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.()
- 발해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구조의 도성을 건설하였다.()
- 발해에서는 정당성의 수상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.()
- 발해는 5경 15부 62주의 지방 제도를 정비하였다.()
- 발해 무왕의 재위 시기에 일본에 국서를 보내고,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. ()

- 발해 무왕의 재위 시기에 상경과 동경으로 천도하였다. ()
- 발해는 3세기 말에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 세력이 크게 쇠퇴하였다. ()
- 발해의 장문휴의 수군이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. ()
- 6세기 초 백제는 웅진에 수도를 두고 중국 남조의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. ()
-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조선 후기에 김정희에 의해 진흥왕이 세운 순수비임이 고증되었다. ()
- 당은 신라를 이용하여 발해를 견제하려는 이이제이의 정책을 썼다. ()
- 발해의 중앙 관제는 당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하여 운영되었다. ()
- 발해와 신라는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교통로를 통해 교류하였다.()
- 발해는 서해 항로를 개척하여 요서 지방으로 진출하였다. ()
- 후백제를 세운 견훤은 한 때 한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신라의 수도를 급습하여 왕을 죽게 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다. ()

제2장 중세의 정치

- 고려 태조 때에는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.()
-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연등회와 팔관회 등 불교 행사를 억제할 것과 주요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.()
- 고려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복진 정책을 추진하였다.()

- 고려의 중앙관제는 이원적인 체제로 구성되었으며, 종추원과 삼사는 전원 합의제로 운영되었다. ()
- 고려에서는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의 호족 세력을 통제하였다.()
- 고려의 중앙관제는 당의 율령 체제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나, 기능과 운영 방식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다. ()
- 고려 중앙관제의 식목도감은 중국에는 없는 것으로, 독자적으로 만든 기관이었다. ()
- 고려시대 평양에는 중앙 정부와 유사한 기구와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. ()
- 고려의 중앙관제에서 중서문하성은 재부, 상서성은 추부로, 두 기구를 합쳐 재추라고 하였다. ()
- 풍수지리설은 서경 천도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. ()
- 태조 때 청천강에서 영흥까지의 국경선을 확보하였다. ()
- 태조는 광덕,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. ()
- 고려 광종은 과거 제도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. ()
- 이자겸과 김부식 등의 문벌 귀족들은 금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였다.()
- 무신집권기에는 이자겸이 두 딸을 왕비로 들이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.()
- 삼별초는 쌍성총관부를 공략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. ()

- 최우 집권기에 정방을 통해 문학적 소양과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이 등용되었다.()
- 삼별초는 고려 조정의 개경 환도에 반발하여 반정부, 반몽골의 기치를 내걸고 봉기하였다.()
- 삼별초는 진도를 근거지로 하여 전라도 도서 지방, 경상도 남해안 일대를 세력권으로 삼았다.()
- 삼별초는 승군(僧軍)과 함께 처인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의 군대를 물리쳤다.()
- 왜구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복주까지 피난을 가기도 하였고, 조운 통로가 막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. ()
- 공민왕은 자주 개혁을 위해 정동행성 이문소를 설치하였다. ()
- 공민왕은 철령 이북을 회복한 뒤 문종 대의 관제로 회복을 시도했다. ()
- 고려 말 신진 사대부들은 소학과 주자가례를 중시하였고, 권문세족과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. ()
- 고려 시대에 왜구가 강화 일대까지 침입하기도 했다. ()
- 고려의 양계에는 중앙에서 병마사가 파견되었다.()
- 양계 지역의 확보는 고구려 계승 의식과 관련이 있다.()
- 양계 이외의 도에는 안찰사가 파견되어 도내의 지방을 순찰하였다.()
- 양계에는 외적 방어를 위해 진이 설치되어 있었다.()

- 고려 양광도의 주민 갑은 주진군에 편성되어 국경 방어를 담당하였다.()
- 조선에서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군사 조직인 광군을 편성하였다.()

제3장 근세의 정치

- 조선 초기에는 명의 부당한 요구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 계획을 추진하였다.()
- 태종은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다. ()
- 조선시대의 사간원, 사헌부, 홍문관에 해당하는 관직이 고려 시대에는 없었다.()
- 사간원, 사헌부, 홍문관은 권력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다.()
- 세종 때에는 삼포를 열어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해약조를 맺었다. ()
- 세종 때 토관 정책을 실시하여 복진정책으로 얻은 땅의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하였다.()
- 6조 직계제는 세종 때 폐지되었다가 세조 때 다시 시행되었다.()
- 세종은 사병을 혁파하고 갑사를 재조직하였다.()
- 세조는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종친들을 등용하려 하였다. ()
- 홍문관은 세조 때 폐지된 집현전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. ()
- 훈구 세력의 학풍은 사장 위주였고 중앙 집권 강화에 노력하였다. ()
- 사림은 언론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연을 강화하고자 하였다. ()
- 사림은 내수사 장리의 폐지와 토지 집중의 완화를 주장하였다. ()

- 유향소는 중앙과 지방의 연락 업무를 맡았다.()
- 유향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였다.()
- 무오사화는 김일손과 이극돈의 조의제문과 관련된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. ()
- 무오사화는 임사홍이 폐비 윤씨 사건을 연산군에게 밀고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. ()
- 무오사화의 전개 과정에서 외척 간의 다툼으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. ()
- 훈구는 서원을 토대로 학문의 기반을 구축하였고, 소학 보급에 노력하였다. ()
- 흥문관의 소속 관원은 소속 관원은 청요직이라 하여 선망의 대상이었다. ()
- 조선의 관찰사는 감영에 근무하며 부·목·군·현의 지방관을 감찰하였다.()
- 조선의 속오군은 일정 기간 교대로 국경의 요충지에 배속되어 근무하였다.()
- 속오군은 신분을 막론하고 장정을 선발하여 정원을 채웠다.()
- 사림은 소격서를 폐지하고 소학 교육을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. ()

제4장 근대 태동기의 정치

- 숙종 때에는 집권 붕당의 교체를 통해 왕권 강화를 도모하였다. ()
- 숙종 때 윤희는 청의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북벌 움직임이 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북벌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였다.()
- 광해군은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.()

- 광해군은 양전을 비롯하여 전쟁의 뒷수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.()
- 광해군은 기유약조를 맺어 일본과 교섭을 재개하였으며, 명의 요천으로 군대를 파견하였다.()
- 정조의 탕평책은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것이었다.()
- 정조 때에는 서인과 남인이 상호 비판, 견제하면서 공존 관계를 지속하였다.()
- 비변사는 16세기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 처음 설치되었다.()
-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구성원이 3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다.()
- 공조판서도 비변사의 구성원이 되어 회의에 참여하였다.()
- 소론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명분을 중시하였다.()
- 노론은 절충적인 성격을 지닌 성혼의 사상을 계승하고 양명학과 노장 사상 등을 수용하는 등 성리학 이해에 탄력성을 보였다.()
- 비변사는 세도 정치기에 소수 외척 가문에 권력이 집중되면서 약화되었다.()
- 비변사는 정조 대에 문한 기능이 강화되어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가 되었다 ()
- 인조 반정 이후의 논공행상은 결과적으로 대외적 위기를 초래하였다.()
- 숙종 때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인을 쫓아 냈다.()
- 남인은 예송논쟁에서 효종의 정통성을 주장하였으며 기사환국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.()

- 암행어사는 고려 시대 삼사의 관원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. ()
- 영조는 금위영을 설치하여 5군영 체제를 완비하였다. ()
- 정조는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. ()
- 정조는 금위영을 설치하여 5군영 체제를 갖추었다.()
- 정조는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였다.()
- 조선 후기에 훈련도감에 이어 군영이 추가로 설치되어 중앙군은 5군영 체제를 갖추었다.()
- 영조는 이조 전랑이 3사의 관리를 선발하던 관행을 없애고자 하였다. ()

제5장 근·현대의 정치

- 비변사 폐지는 고종의 친정 이후 민씨 세력이 추진하였다.()
- 비변사를 폐지한 것과 동일한 목적에서 삼군부의 기능이 회복되었다.()
- 전환국은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.()
- 갑오개혁 때 정부가 법적으로 신분제도를 폐지하였다.()
- 1차 갑오개혁 때에는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구별하고 종래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, 이를 의정부 직속으로 하였다.()
- 2차 갑오개혁 때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치고 7부를 두었다.()

- 갑오 개혁 때 인사제도는 문무관을 개편하고 월봉제도를 수립하였으며, 과거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관리 임용법을 채택하여 종래의 문무·반상(班常)의 구별을 폐지하였다.()
- 갑오 개혁 때 지방제도의 개혁은 8도를 23부로 고쳤다가 다시 13도로 고쳤다. 지방관으로부터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함으로써 횡포와 부패를 막아 지방행정체제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근대 관료체제를 이룩하였다.()
- 갑오 개혁 때 나라의 공식문서에 한글을 사용하도록하였으며, 개국기원을 사용 청과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다.()
- 갑오 개혁 때 재정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탁지부에서 관장하여 재정의 일원화를 꾀하였다.()
- 신식화폐장정에 의한 은본위제도를 채택하고, 조세의 금납화 실시하고, 도량형을 개편하여 일본식으로 통일한 것은 갑오개혁 때이다.()
-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. ()
- 강화도조약은 해안 측량권과 개항장 설치를 허용하였다.()
- 흥선 대원군은 신미양요 이후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였다. ()
-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는 헌병 경찰 제도와 태형령으로 한국인의 독립 의지를 막았다. ()
-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에는 육해군 대장만 임명되도록 하였다.()
- 1920년대 문화 통치 시기에는 조선 총독의 자격 기준을 바꾸었다. ()
-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는 조선의 주장으로 거중 조정의 조항을 넣었다. ()

- 조미수호통상조약과 강화도조약은 영사 재판권이 허용된 불평등 조약이었다.()
- 군국기무처의 개혁안에는 각 도의 환곡을 영구히 폐지할 것,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, 그 밖의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이 포함되어있었다. ()
- '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.'는 내용 등을 규정한 한 일의정서는 러·일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이 강요하였다.()
- 김원봉은 민족 유일당 건설을 목표로 민족 혁명당을 건설하였다. ()
-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다. ()
- 황포 군관학교에는 조선 의열단 단원들이 입학하여 군사 교육 및 간부 훈련을 받았다. ()
- 의열단은 조선 의용대의 일부 대원을 흡수하였다.()
- 조선혁명군은 1930년대 초에 영릉가,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.()
- 양세봉이 이끈 조선 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.()
- 조선혁명군은 지청천의 지휘하에 중국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. ()
- 한국광복군은 중국 정부와 협력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였다.()
- 한국 광복군은 1945년 미군의 지원을 받아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고 국내 진입작전을 위한 특수 훈련을 실시하였다.()
- 한국광복군은 지청천의 지휘 아래 주로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였다.()
- 조선의용대는 중·일 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본토에서 결성되었다.()

-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는 중국군과 합세하여 중국 각 지역에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.()
- 1937년 중·일 전쟁이 일어나자 민족 혁명당은 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연합하여 조선 민족 전선 연맹을 결성하고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1938년에 군사 조직인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였다.()
- 조선의용군은 연안에서 창설되어 중국 팔로군과 함께 활동하였다.()
- 보부상들은 사발통문이라는 독특한 연락 방법을 사용하였다. ()
- 조선 주재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한반도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. ()
- 임오군란의 주도 세력은 경북궁을 점령하고 대원군을 섭정에 추대하였다.()
- 한성 조약의 체결 후 일본은 공사관 경비 구실로 군대를 주둔하게 되었다. ()
- 한성 조약의 결과 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동등하게 획득하였다 ()
- 헤이그 특사 파견은 세계 각국 기자들의 동정과 지지를 받아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의 배경이 되었다. ()
-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 체결된 정미조약에서는 통감부가 설치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. ()
-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과 맺은 첫 수호 통상 조약으로, 청의 알선으로 체결되었다. ()
-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은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 강화를 지향하였다. ()
-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불평등 조약이기는 하지만 조선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였다.()

- 조일수호통상조약은 조약 체결 과정에서 속방 조회(屬邦照會)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었다. ()
- 조선 총독부는 간도 지역에 간도관리사를 파견하였다. ()
- 유길준은 미국에서 귀국 직후 민씨 정권의 신임을 얻어 개혁을 주도하였다. ()
- 갑신정변은 청·프 전쟁으로 인해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의 일부가 철수한 것을 배경으로 발생하였다. ()
- 청군이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성 부민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. ()
- 독립협회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는데 앞장섰다.()
-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에 반대하였다.()
- 정부는 관민 공동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추원을 구성하였다.
- 보부상들은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황국 협회의 활동을 방해하였다. ()
- 미국은 <조선책략>에서 연합해야 할 국가로 언급되었으며, 서양 국가 중에서 최초로 조선과 수교하였다. ()
- 정부가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원군을 요청하자 일본도 텐진 조약에 근거하여 군대를 파견하였고, 이것은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었다.()
- 러시아와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파병할 때 상호 통보하도록 규정한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.()
- 정부는 동학 농민군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제를 부분적으로 개혁하였다.()

- 안핵사 이용태는 동학 봉기의 참가자와 주모자 색출을 지시하였다.()
- 동학 혁명 당시의 최대 과제는 수취 체제와 토지 소유를 둘러싼 갈등의 해소였다.()
- 동학농민군이 신분 차별 철폐를 요구하였다.()
-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이후 자주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였다. ()
- 유길준은 조사 시찰단의 일원이었으며 1880년대 중반 조선 중립화론을 제기하였고, 후에 서유견문을 출간한 바 있다. ()
- 미국은 러시아, 독일과 함께 삼국 간섭에 참여하였다. ()
- 러시아는 삼국 간섭을 통해 조선과 만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저지하였다.()
-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. ()
-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한성 조약의 결과 조선은 일본 공사관의 신축 비용을 부담하였다. ()
- 을미의병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였다.()
- 정미의병은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. ()
- 정미 의병의 일부는 단발령 시행에 분노하여 봉기하였다.()
- 의병 탄압을 위한 남한 대토벌작전의 결과 의병들은 간도와 연해주 지방으로 대부분 이동하였다.()
-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. ()

- 화폐 정리 사업은 일본인 재정고문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이후 일본 제일은행권이 본위 화폐가 되었다.()
-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는 고종에 의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으며 세계의 지리와 문화를 소개하는 <사민필지>를 저술하였으며, 한국 최초의 서양인 고문으로 활동하였다. ()
- 러시아는 절영도 조차를 시도하였다. ()
- 정미의병은 각국 영사관에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. ()
- 3·1운동 때 미주에서 교민들도 한인 자유 대회를 개최하고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였다.()
- 3·1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었다.()
- 3·1운동 때 검거된 사람은 치안 유지법으로 탄압받았다.()
- 3·1운동 이후 실력양성운동을 제창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족주의 세력이 타협과 비타협으로 분화되었다.()
- 3·1운동 이후 실력양성운동을 제창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치론이 부각되었으나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.()
- 3·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이 구성되어 임시 헌장을 발표하였다.()
- 한국 독립군은 중국군과 연합하여 항일전에서 큰 전과를 거두었다. ()
- 신채호는 조선 혁명 선언을 발표하여 독립을 위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도하였다. ()
- 신채호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외무부장을 지냈으며, 삼균주의를 주장하였다. ()

- 김구는 윤봉길과 이봉창 의거를 일으킨 한인 애국단을 이끌었다. ()
- 의열단은 신채호의 '조선 혁명 선언'을 채택하였다. ()
- 의열단은 밀양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,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사건 등을 주도하였다.()
- 신간회는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.()
- 일진회는 문화통치시기에 민족 분열을 위하여 이용되었다.()
- 신민회는 중앙과 지방 조직을 갖추고 항일 군사 행동을 준비하였다.()
- 신민회는 궁극적으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면서 공화주의(共和主義) 정부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다.()
- 신간회는 치안유지법의 적용을 받아 해체되었다.()
- 신간회는 전국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였다.()
- 청산리 전투에 흥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 참가하였다.()
- 신간회는 1929년 광주 학생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진상 보고를 위한 민중 대회를 열어 전국적인 항일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행되지는 못하였다.()
- 청산리 전투 이후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동포들이 참변을 겪었다.()
- 청산리 전투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전투를 벌였다.()
- 한국 독립군은 김좌진, 김동삼 등이 중심이 된 혁신 의회를 개편하여 결성한 군사 조직이었다. ()

- 3부 중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로부터 군정부로 승인 받았다. ()
- 만주에 세워진 3부(참의부, 정의부, 신민부)는 민정 기관과 군정 기관을 겸하였다.()
- 3부 통합운동은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는 배경이 되었다.()
- 국민부가 관할한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이 활동하였다.()
- 의열단은 <조선혁명선언>을 발표하고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군사 훈련에 힘썼다. ()
- 정미 의병 때 평민 의병장 신돌석 부대가 활약하였다. ()
- 의열단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다. ()
- 자유시 참변은 봉오동 전투에서의 패배에 대한 일본군의 보복으로 일어났다.()
- 봉오동 전투에서는 대한 독립군과 북로 군정서가 연합하여 싸웠다.()
- 일제강점기의 민족 말살통치시기 때 일제는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여 사상 탄압을 강화하였다. ()
- 1923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민 대표 회의에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채택하였다.()
- 김구는 군사 특파단을 시안에 파견하였고, 한국 독립당을 이끌었다. ()
- 송진우, 김성수 등이 중심이 된 한국 민주당은 미군정의 지원으로 성장하였다. ()
-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 구상은 김규식, 백남운 등 중도파의 지지를 받았다. ()

- 여운형은 미군정이 지원한 좌우 합작 위원회에 참여하였다. ()
- 김구는 일본인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는 대가로 조선 총독에게 5개 조항을 요구하였다. ()
- 김구는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신탁 통치 결정을 지지하였다.()
- 김구는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.()
- 김구는 광복 이후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으며, 남북 협상에도 참여하였다. ()
- 김구는 임시 정부 법통을 내세우면서 반탁 운동을 주도하였다. ()
- 좌익 세력은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친일파 처리 문제로 탈퇴하였다. ()
- 건국준비위원회는 친일파를 배제한 좌우 정치 세력의 민족 연합 전선을 추구하였다. ()
- 건국준비위원회는 좌익과 우익 인사들이 함께 결성하였다.()
- 건국준비위원회는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미군 진주 이전에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였고 미군정 시기에 인민 대표자 대회를 열어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. ()
- 미·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다.()
- 김구, 김규식 등이 참가한 남북 지도자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났다.()
- 이승만은 국제 연맹에 의한 위임 통치를 청원하였다.()
- 이승만은 신한 청년당 대표로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되었다.()
-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.()

- 1956년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은 '사사오입 개헌'으로 출마할 수 있었다. ()
- 이승만 정권 때의 3·15 부정선거는 진보당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. ()
- 이승만 정권 때의 3·15 부정선거는 마산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켰다. ()
- 4·19 혁명은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이어졌다.()
- 4·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다.()
- 4·19 혁명 때에는 박종철의 죽음에 분노한 시민이 가세하였다.()
- 미국의 애치슨 선언은 북한의 전쟁 준비에 영향을 끼쳤다.()
- 남한은 북한의 체제에 반대하는 포로들을 석방하였다.()
- 중국이 미국에게 제안하여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다.()
- 남한과 미국은 전쟁 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.()
- 1972년 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였다. ()
- 1960년 헌법과 1972년 헌법에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도입하였다. ()
- 유신집권기에는 대통령이 국회 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였다.()
- 유신집권기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7년 단임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.
- 7·4남북 공동 성명의 결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. ()

- 7·4 남북 공동 성명에서 통일 3대 원칙이 남북 당국 간에 최초로 합의되었다.()
- 7·4 남북 공동 성명은 남과 북에서 정치 권력의 강화에 이용되었다.()
- 북방 정책을 추진하던 1980년대에 무렵 남북 적십자 회담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. ()
- 노태우는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였다. ()
- 박정희 정권의 통일 노력으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. ()
- 남북 기본합의서의 합의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졌다.()
- 남북 기본합의서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.()
-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되었다.()
-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개성 공단 조성 사업이 착수되었다.()
-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었다

제3편 경제

제1장 고대의 경제

-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깊이갈이가 가능해졌다.()
- 통일 신라 시대에는 인구, 토지, 유실수 등을 조사하여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다. ()
- 통일신라기 녹읍에서는 조세를 걷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. ()

- 신라 말기에는 녹읍이 부활되어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확대되었다.()
- 발해에서는 사신들을 따라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본으로가서, 모피·인삼·말 같은 토산물을 교역하였다.()
- 신라는 통일 후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하였다.()
- 통일 신라는 상품 수요의 증가로 수도에 서시와 남시를 증설하였다.()
- 후삼국 통일 이후 나라를 통합하고 안정적인 부세 수취를 위해 존재하던 본관제와 같은 지배체제가 붕괴되었다.()

제2장 중세의 경제

- 고려 태조 때에는 도염원(都鹽院)을 설치하고 소금을 전매하였다. ()
- 고려 태조는 서경에 분사 제도를 실시하고, 취민유도(取民有度)를 내세워 농민의 조세 부담을 가볍게 하였다. ()
- 태조는 의창, 상평창을 설치하여 백성들을 구휼하였다. ()
- 고려 의창제도는 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운영하였다.()
- 고려의 전시과 제도에 따르면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 관리에게 지급하였다. ()
- 구분전은 고려 시대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었다.()
- 고려의 전시과 제도에 따르면 토지와 그에 딸린 노동력의 수취를 규정하였다. ()
- 고려의 공물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있게 부과되었다.()

- 전시과제도에서 서리와 군인은 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 ()
- 공해전은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.()
- 공음전은 현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였다.()
- 공역(公役)을 피하기 위해 노비가 되는 양민이 늘자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.()
- 고려의 전시과 제도에 따르면 국가는 전지와 시지를 분급하였다. ()
- 고려의 전시과 제도에서는 수조권자의 중복을 막고자 하였다. ()
- 고려 후기 시작된 경기 과전은 5품 이상의 관리를 대상으로 지급하였다.()
- 조선 후기의 금속 화폐로는 해동통보, 해동중보, 삼한통보 등이 있었다. ()
- 고려 때에는 고가 화폐로서 우리나라 지형을 본뜬 활구가 발행되었다.()
- 고려 때 소의 주민은 주민은 중앙 관청에 소속되어 수공업 제품을 만들었다. ()
- 부곡 주민은 일반 군현의 주민보다 세금 부담이 컸다. ()
- 향, 소, 부곡의 주민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. ()

제3장 근세의 경제

- 조선 초기에는 밭농사로 조·보리·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다.()
- 과전법 하에서는 전지 외에 시지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.()
- 조선시대에는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상,중,하로 나누었다.()

- 과전법 하에서 갑사 등의 군인과 한량에게 군인전을 지급하였다.()
- 세조 때의 직전법에 따라 관리가 죽은 후 부인에게 수절을 조건으로 지급되었던 수신전과 어린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었던 효양전도 폐지되었다.()
- 명종 때 직전법의 폐지로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고 녹봉만 지급하였다.()
- 조선 초기에는 이양법이 남부 지방 일부에서 행해졌다. ()
- 시전은 점포세와 상세를 부담하며 경시서의 통제를 받았다. ()
- 시전 상인들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달하는 대신 독점 판매권을 얻었다.()
- 도성의 인구가 증가하고 근교의 장시가 발달하면서 시전 상인들은 영업 구역을 넓혀 갔다.()
- 조선의 시전 상인들은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경시서의 감독을 받았다.()
- 세종 때에는 미망인이 수신전을 지급받았으며, 수조권자가 과전으로 받은 토지의 생산량을 직접 조사하였다. ()
- 연분9등법의 연분은 지역 단위로 결정되었다.()
- 조선 후기 전황으로 인해 동전이 잘 유통되지 않자 정부는 저화를 발행하였다. ()
- 제주도는 토지가 척박하여 조세를 거두지 않았으므로 조운의 대상이 아니었다. (X)
-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 ()
- 시전의 상인은 평시서의 감독을 받았으며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였다. ()

제4장 근대 태동기의 경제

- 18세기 후반부터는 세금과 소작료도 동전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. ()
- 설점수세제(設店收稅制)의 실시로 인해 정부에서 파견된 덕대가 광산을 운영하게 되었다. ()
- 조선 후기에 은의 수요가 증가한 것은 청과의 무역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. ()
- 조선 후기에는 중강 후시에서 중국과의 인삼 교역이 이루어졌다.()
- 유형원은 한 집의 일정한 토지를 영업전으로 삼는 한전제를 주장했다. ()
- 대동법의 전국적 실시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과세 기준도 가호에서 토지 결수로 바뀌어 지주의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었다. ()
- 조선 후기에는 지주와 대상인들은 화폐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으며, 전황으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. ()
- 대동법의 실시로 공납의 전세화가 이루어졌다. ()
- 대동법은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. ()
- 대동법은 토지 1결당 미곡 12두를 거두는 제도였다. ()
- 대동법의 실시 결과 과세 기준을 가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로 바꾸었다. ()
- 대동법의 실시 결과 궁방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공인을 지정하였다. ()
-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 진상과 별공이 폐지되어 농민의 부담이 가벼워졌다. ()

-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포나 돈으로 징수하였다. ()
- 조선 후기에는 많은 면세지로 인해 원장부 결 수와 실제 수세 결 수의 차이가 컸다.()
- 정약용은 1여(閭)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과 수확을 하도록 하는 여전론을 주장했다. ()
- 박지원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고, 그 이상의 토지 매점을 엄금할 것을 주장했다. ()
- 모내기법의 보급 결과 논을 밭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해졌으며, 농기구가 개량되고 농종법이 시작되었다. ()
- 사상(私商)들은 신해통공으로 도성 안에서 자유로운 상행위를 할 수 있었다. ()
- 균역법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결작미를 거두었다. ()
- 모내기가 확산되어 지대 납부 방식이 타조법으로 바뀌었다. ()
-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 토지 1결당 쌀 4두를 징수하였다. ()
- 조선 후기에는 많은 면세지로 인해 원장부 결 수와 실제 수세 결 수의 차이가 컸다.()
- 어장세와 선박세는 대동법 실시로 부족한 국방비를 보충하기 위해 징수하였다.()
- 영정법은 17세기 인조 때 실시되었다.()
- 정조 때의 통공 정책으로 인해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의 금난전권이 철폐되었다. ()
- 광작이 확대되면서 자영 농민의 수가 증가하였다. ()
- 종루, 이현, 칠패 등은 조선 초기에 등장한 것으로, 5일마다 장이 열렸다. ()

• 15세기 말 전라도 지역에서 장시가 처음으로 설치되어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.
()

• 조선 후기에는 장인세만 내면 자유로이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.()

• 조선 후기에 소작농들은 벼 수확 후 논에서 보리농사 짓는 것을 선호하였다. ()
평안도에서 거둔 세금은 사신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. ()

제5장 근·현대의 경제

• 당백전은 경복궁 중건에 따른 재정 확충을 위해 발행되었다. ()

•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인해 개항장 객주가 몰락하게 되었다.()

•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로 인해 청 상인들의 한성 진출로 한성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. ()

•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은 청 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상권 경쟁을 초래하였다.()

• 개항기의 교역은 주로 공산품을 들여오고 농산물을 가져가는 구조로 이루어졌다. ()

• 개항기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귀금속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. ()

• 방곡령은 지방 단위로 선포되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.()

• 방곡령은 무관세로 곡물이 유출되는 현실로 인해 선포되었다.()

-무관세는 아니었다.

•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이에 대항하여 농광회사가 설립되었다. ()

• 미국은 운산 금광 채굴권을 차지하였다. ()

- 대한제국은 양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계 아문을 설치하였고, 개항장 밖에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였다. ()
- 국채보상운동은 ‘내 살림 내 것으로’, ‘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’ 등의 구호를 앞세웠다. ()
- 국채보상운동은 조선 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.()
- 국채보상운동에는 대한 자강회와 같은 애국 계몽 단체와 제국신문, 만세보 같은 언론 기관이 참여하였으며, 일본 유학생과 해외 교포도 참여하였다. ()
- 일본은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의 모든 용지를 아주 싸게 헐값으로 매수하였다.()
- 1910년대에는 토지 조사 사업으로 궁방전, 역둔토 등을 일본인 소유로 바꾸었다. ()
- 토지 조사 사업으로 소유권을 박탈당한 농민들이 토지 회수운동을 전개했다.()
- 1930년대에는 회사령을 폐지하여 일본의 자본 진출을 도왔다. ()
- 1930년대 말 전시 물자 확보를 위해 일제는 한반도에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했다.()
-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였다. ()
- 산미증식계획의 실시 결과 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어 토지의 매매와 저당이 자유로워졌다.()
- 동양 척식회사를 통해 토지를 싸게 불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일본 농민이 크게 증가했다.()
- 쌀 생산량의 증가에 비해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더욱 급증하였다.()

-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조선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점차 증가하였다.()
-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쌀이 대량 반출되면서 조선인 대지주가 몰락하였다. ()
-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농업 구조가 벼 농사 중심으로 바뀌었다.()
- 지주는 수리 조합비, 비료 대금을 소작농에게 부담시켰다.()
- 국내에서 소비할 쌀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만주에서 잡곡이 수입되었다.()
- 물산장려운동은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생필품의 가격이 치솟아 상인이나 자본가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대중의 외면을 받았다. ()
- 물산장려운동은 한말의 국채 보상 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1920년에 조만식이 평양에서 시작했다. ()
- 개항기의 일본 상인의 무역 주도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지주와 상인들이 몰락하였다. ()
- 산미 증식 계획의 추진으로 소작농이 줄어들고 자영농이 늘어났다. ()
- 담배는 조선 후기에 주요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으며,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전 상인이 등장하였고, 개항 직후에 전매제의 대상이 되었다. ()
- 시전 상인들은 개항 이후 열강의 시장 침투에 대항하여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.()
- 조선 총독부의 토지 조사 사업은 안정적인 지세 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고 예산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었으나 그 결과 역둔토, 미간지 등이 조선 총독부에 의해 점유되었다. ()
- 이승만 정권 때의 농지 개혁의 결과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였다. ()

- 농지 개혁으로 국가에서 몰수한 토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하였다. ()
- 일제 강점기의 조선물산장려운동은 일본과 조선 사이의 무역에서 관세 철폐 움직임이 계기가 되었다. ()
- 신한공사는 귀속 토지와 농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.()
- 농지개혁은 미군정기에 신한 공사에 의해 추진, 완료되었다.()
- 1950년대 미국의 원조 물자로 인해 제분·섬유·제당 공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였다. ()
- 1950년대 정부는 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혼식이나 분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. ()
- 새마을 운동은 전후 경제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.()
- 새마을 운동은 도시에서 시작하여 농촌으로 확산되었다.()
- 196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농촌 생활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전개한 새마을 운동이 도시로 파급되었다.()
- 1980년대에는 저금리·저유가·저달러의‘3저 호황’이 지속되었다.()
- 1970년대에는 세계 무역 기구(WTO) 가입과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농촌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.()
- 1997년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 통화 기금(IMF)로부터 돈을 빌림으로써 국제 통화 기금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.()

제4편 사회

제1장 고대의 사회

- 고구려에는 혼인한 뒤, 처가에서 자식을 낳아 기르다가 자식이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풍속이 있었다. ()
- 향·부곡의 주민도 일반 군·현민과 마찬가지로 3세(稅)라 불리는 국역을 부담하였다. ()
- 태종 무열왕은 진골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올랐다. ()
- 4두품은 신라 말에 농민 항쟁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다.()
- 진골은 최상위 관등을 독점하였고,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.()
- 진흥왕은 청소년 조직인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. ()
- 화랑도는 국왕과 귀족 간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.()
- 신라의 향리는 직역 수행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다.()
- 발해를 이끈 사람들은 대씨나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.()

제2장 중세의 사회

- 향도는 원래 불교의 신앙조직으로 시작되어불상이나 석탑을 만들거나 절을 지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, 고려 후기에 마을 노역, 상장례, 마을 제사 등을 주관하는 것으로 변모했다.()

- 노비가 윗사람을 능멸하지 못하게 하고, 종과 주인 사이의 명분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노비환천법(奴婢還賤法)이 도입되었다. ()
- 고려의 백정 농민은 법률상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다. ()
- 고려에서는 과거제도보다 음서제도가 먼저 제도화 되었다. ()
- 고려 때 부곡민이 공로를 세우면 출신 부곡이 현으로 승격될 수 있었다. ()
- 고려에서는 과거제와 음서제를 모두 거친 관리도 있었다. ()
- 고려 무신집권기에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·망소이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봉기하였다.()
- 고려 시기 고구려 부흥이나 백제 부흥을 표방한 삼국 부흥 운동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식이 등장한 것은 농민 봉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.()
- 음서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면 한직제의 제한이 있었다. ()
- 고려 성종 때 전국이 10도로 개편되고, 팔관회가 폐지되었으며, 노비환천법이 실시되었다. ()
- 고려 때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일부다처제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다. ()
- 문벌 귀족은 음서제를 통해 관직 등용의 특권을 누렸다. ()

제3장 근세의 사회

- 조선 후기에는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완성되어 역법이 정비되었다. ()

- 향약은 조광조 등의 노력으로 종종 때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다. ()
- 조선의 선비들에게는 극락 왕생을 위한 묵상과 경전 공부가 권장되었다.()
- 조선시대 향약은 향도의 활동을 규율하던 규약에서 유래한 것이다.()
- 향리는 군역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에는 잡색군에 편제되었다. ()
- 조선 때 향리는 향청에 참여하여 풍속 교화와 향촌 자치에 힘썼다. ()
- 조선 때 향리는 직역의 복무 대가로 국가로부터 녹봉을 지급받았다. ()
- 조선의 향리는 생원·진사시를 볼 때 반드시 소속 군현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였다. ()
- 조선 초기의 족보는 아들만이 아니라 딸의 후손도 모두 수록하여, 일종의 만성보(萬姓譜) 성격
을 가졌다.()

제4장 근대 태동기의 사회

- 조선 후기에는 양인 여자의 소생은 어머니의 역을 따르도록 하였다. ()
- 종래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던 향회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의견
을 묻는 자문 기구로 역할이 바뀌었다. ()
- 공명첩은 전력 강화나 재정 확충을 주된 목적으로 임진왜란 중에 발급되기 시작하였으며, 사찰
중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발급되기도 하였다. ()
- 임란 후 전쟁에서 공을 세운 의병장들은 고위 관료로 진출하기도 했다. ()
-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사람은 납속을 하지 않아도 관리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. ()

- 조선 후기에 관직이 높고 학문이 뛰어난 조상은 동족 마을의 구심점이 되었다.()
- 조선 후기에는 종법적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민촌이 반촌으로 변화하였다.()
- 조선 후기에는 종족의 종적인 내력과 횡적인 관계를 확립시켜주는 보학이 크게 발달하였다.()
- 조선 후기에는 조세 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납속책이 시행되었다.()
- 조선 후기에 신향은 관권과 결탁하여 성장의 기반을 굳건히 하면서 향회에 참여하여 이를 장악하려 하였다. ()

조선 후기 양반의 지위를 얻게된 일부 부농은 군역을 면제받게 되었다.(Of)

- 조선 후기에 기존 사족들은 동족 마을을 토대로 결속력을 강화하고 향촌 지배권을 유지하려 하였다. ()
- 서얼들은 18세기 후반부터 청요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. ()
- 조선 후기에 구향은 신향의 성장에 대응하여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널리 실시하여 세력을 잃지 않으려 하였다. ()
- 중인들은 문과 시험 응시가 금지되었다. ()
- 서얼들과 달리 중인들의 과거 응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했다. ()
- 중인들의 일부는 무역에 관여하여 큰 이득을 보기도 했다. ()
- 서얼들은 제사나 재산 상속에는 평등했다()

- 서얼들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했다. ()
- 중인과 서얼들은 시사를 조직하여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.()
- 조선 후기에는 몰락한 양반이 봉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.()
- 봉기 발생 이전에 소청, 벽서, 궤서 등의 항거가 있었다.()
- 조선 후기에 국가 재정 수입의 확대를 위해 공노비를 대규모로 해방시켰다.()

제5장 근·현대의 사회

- 연해주의 조선 이주민들은 한국인 집단촌인 신한촌을 형성하였으며, 중앙 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하였다. ()
- 미국의 조선 이주민들은 이주 초기에는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로 건너갔으며, 대한 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여 활동하였다.()
- 근우회는 봉건적 굴레로부터의 여성 해방과 일제 침략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하였다. ()
- 1907년 대한자강회는 고종 황제의 퇴위와 순종 황제의 즉위를 반대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가 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해산되었다.()
- 대한자강회는 국채 보상 운동 때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으며, 통감부가 제정한 보안법에 의해 해산되었다. ()
- 6·10만세 운동은 1920년대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었다.()
- 6·10만세 운동은 학생들의 주도적인 역할로 추진되었으며 치안 유지법에 의하여 탄압을 받았다.()

- 6·10 만세 운동 때 학생들은 식민지 노예 교육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학생들이 주도한 전국 규모의 항일 독립 운동이 일어났다.()
- 1960년대에는 전태일 사건 등으로 인해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YH 무역 사건을 비롯한 노동 운동이 일어났다.()

제5편 문화

제1장 고대의 문화

- 선덕여왕은 첨성대를 세워 천문 현상을 관측하였으며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하여 군사를 청하였다. ()
- 원효는 심문화쟁론을 저술하였고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융화하려고 하였다. ()
-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 종파들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.()
- 천마도는 돌무지덧널무덤인 천마총에서 발견된 껌묻거리의 하나이다. ()
-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은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.()
- 고구려와 백제에서 사신도가 그려진 무덤이 만들어졌다.()
- 무령왕릉이 온전하게 보존된 것은 도굴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.()
-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다.()
- 굴식 돌방무덤은 고구려의 대표적 무덤의 하나인데 무덤방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().
- 평양에서 돌레돌에 12지신상을 새긴 무덤이 발견되었다.()

- 발해는 모졸임 천장 구조의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다.()
- 백제와 고구려의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통해 건국 세력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.()
- 발해의 정혜공주가 즉자 3년 장을 치른 후 굴식 돌방무덤에 묻은 것은 당나라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.()
- 발해 상경성에서 10여 개의 절터가 발견되고 불상이 나온 것은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불교를 믿었음을 보여준다.()
- 신라 초기의 석탑은 여러 면에 불상이 부조된 것이 특징이다. ()
-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우리 문화의 일본 전파를 보여준다. ()
- 원효는 아미타 신앙을 전도하며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. ()
- 원효는 성(性)과 상(相)을 융통하여 밝히고 고금을 세밀히 살펴서 백가이쟁(百家異諍)의 실마리를 화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.()
- 신라의 상고·중고·하고는 삼국사기의 시기 구분이다. ()
- 백제에서는 고흥이 역사서인 서기를 편찬하였다. ()
- 불국사의 석가탑 안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. ()
-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은 땅을 파지 않고 시체를 지상에 안치한 것이 특징이다. ()
- 굴식돌방무덤은 고구려 초기의,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 후기의 양식이다. ()
-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에는 무덤 주인공의 시체가 안치된 공간에 벽화가 많이 그려졌다. ()

- 원효는 세속 5계를 지어 화랑도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 ()
- 의상은 화엄 종단에서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.()
- 신라의 승탑은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선종과 관련이 있다. ()
- 분황사 석탑은 중국의 전탑을 본떠 벽돌을 구워 만들었다. ()
- 향교에서는 평민 자제에게 경전과 무예를 가르쳤다. ()
- 고구려는 수도에 경당을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고, 지방에는 태학을 세워 청소년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다.()
-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을 모방한 석탑으로 미륵 신앙과 관련있다.()
- 칠지도는 신라와 왜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다.()
- 신라에서는 신문왕 때 국학이라는 유학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.()
- 신라에서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업보를 받는다는 업설과, 미륵불이 나타나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미륵불 신앙이 널리 받아들여졌다.()
- 통일 신라 때에는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과 탑비가 유행하였다. ()
- 승탑과 탑비는 중앙 집권이 강화된 정치 현실을 반영한다.()
- 석가탑은 통일 신라 석탑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.()
- 원효는 해동 화엄종을 창시하고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다.()

제2장 중세의 문화

- 고려 초기에 선명력을 대신하여 수시력을 채용하였다. ()
- 선명력은 고려 후기에 원나라로부터 들여온 역법이다.()
- 고려 초기에는 대형 철불과 거대한 석불이 많이 조성되었다.()
- 무신정권 때 최충이 9재 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썼다. ()
- 조선 시대에는 구양순체와 송설체의 글씨체가 주류를 이루었다.()
-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최영,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고 화약 무기가 개발되어 국방 능력이 높아졌다. ()
- 고려의 불화는 신앙 결사 운동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러졌다. ()
- 고려 때 개경과 강화도에서는 금속활자를 통해 <직지>가 간행되었다. ()
- 문종대의 남경 설치는 풍수지리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.()
- 지눌은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. ()
- 지눌은 화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펼쳤다. ()
- 의천은 국청사를 창건하고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.()
- 의천은 교학을 중심으로 선을 포용하였다.()
- 고려가 몽골과 강화한 이후 정치·문화적으로 자주성이 심각하게 손상되자 단군을 강조하는 등 자주적인 역사관이 대두하였다. ()

- 조선 후기에는 향약구급방을 편찬하여 국산 약재를 소개하였다. ()
- 최씨 무신정권 시절 요세가 강진 만덕사에서 백련 결사를 결성하였다. ()
- 혜심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여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. ()
- 의천은 흥왕사를 근거지로 삼아 교종 통합 운동을 전개하였다. ()
- 고려 성종은 지방에 경학 박사를 파견하여 유학을 진흥시켰다.()
- 사학의 발달로 공립 교육 기관인 국자감은 폐지되었다. ()
- 9재의 교과목은 유교 경전과 역사서였다.()
- 사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과거에 많이 합격했다.()
- 사학이 융성하면서 국학의 폐지론이 대두되었다.()
- 국학은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제도였다.()
- 고려 예종 때에는 국자감을 재정비하고 전문 강좌를 설치하였다.()
- 지눌은 권문세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. ()
- 고려 말 쓰여진 <사략>은 이제현이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저술한 역사서이다.()

제3장 근세의 문화

- 정도전은 주례의 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법전인 <조선경국전>을 편찬하였다.()
- 조선 초기에는 독자적인 화풍이 개발되어 무로마치 시대의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.()
- 조선 초기 최해산을 등용하여 화약 무기를 개발하였다.()
- 조선 전기에는 군현의 연혁, 지세 등을 수록한 신찬팔도지리지 편찬하였다.()
- 조선 전기에는 궁중이나 관청에서 분청사기를 널리 사용하였다.()
- 조선 시대에는 풍수지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소격서에서 제천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.()
- 서울 성곽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. ()
- 평양의 보통문과 개성의 남대문은 고려 때의 대표적인 건축이다. ()
- 조선의 과거 시험은 삼 년마다 실시하며 분야별로 정해진 인원이 있었다.()
- 세종 때의 칠정산은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이다.()
- 의방유취는 조선 초기에 기존 의서들을 널리 모아서 편집한 의학 백과사전이다.()
- 세종은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하였다. ()
- 세종 집권기에는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유교 문화 보급에 힘썼다. ()
- 사직단에서는 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고 왕이 친경하였다. ()

- 훈일강리 역대국도지도 현존하는 동양 최고(最古)의 세계 지도로 일본에 남아 있다. ()
- 향교는 양인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하였다. ()
- 사직단에서는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풍요를 기원하였다. ()
- 서당은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 교육 기관이었으며, 교재는 천자문과 동몽선습 등을 기본으로 하였다. ()
- 향교의 학교의 운영을 위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였다. ()
-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들이 만든 세계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하였다. ()
- 수덕사 대웅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은 모두 주심포 양식으로 주심포 양식은 원의 영향을 받았다.()
-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계승한 것이다. ()
- 칠정산은 조선 초에 만들어진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이다.()
- 퇴계 이황은 기발이승일도설(氣發理乘一途說)을 주장하였다. ()
- 이황의 사상은 이이의 사상에 비해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.()
- 이황은 주리론과 주기론을 절충한 입장에서 성리학을 이해하였다.()
- 남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. ()
- 수덕사 대웅전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맞배지붕 형태의 건물이다.()

- 부석사 무량수전의 기둥은 안정감을 주는 배흘림 양식이다.()
-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는 15세기 초 태종 때 이회, 이무, 김사형 등이 왕명으로 제작하였다. ()

제4장 근대 태동기의 문화

- 조선 초기에는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여 우리나라 역대 문물을 정리하였다. ()
- 이황은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다.()
- 윤희는 주자와 다른 학문 체계를 보였기 때문에 당시 서인(노론)의 공격을 받아 사문난적으로 몰렸다. ()
- 조선 후기에는 우리의 정서와 개성을 추구하는 동국진체가 완성되었다.()
- 부석사는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다.()
- <대동여지도>는 실지 답사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실측 지도이다. ()
- 성호 이익은 서양인이 저술한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와 녹로를 만들었다. (X)
- 조선 후기 유득공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확대시켜 한반도 중심의 사관을 극복하였다. ()
- <동사강목>은 18세기에 안정복이 정통론에 입각하여 시대순으로 기록한 통사이다.()
- 정선의 작품은 우리나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. ()
- 동의보감에는 체질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치료하는 의학 이론이 담겨 있다.()
- 양명학의 수용으로 인해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관한 호락 논쟁이 벌어졌다. ()

- 윤희는 사상적 기반을 6경과 제자백가에서 찾으려 하였다.()
-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 절대화되고 형식화되면서 윤희, 박세당 등이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렸다.()
- 정조는 문체반정을 통해 신체문(新體文)을 바로잡으려 하였다. ()
-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들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. ()
- 풍기군수를 지낸 퇴계 이황은 성학십도, 주자서절요 등을 저술하였다. ()
- 강화도에서 북학 사상의 발생에 기여한 학파가 생겨났으며, 강화도는 경화 사족의 자제들이 공부한 곳이었다. ()
- 남명 조식은 벼슬을 하지 않고 재야에서 처사로 일생을 보냈으며, 의병장인 곽재우, 정인홍 등이 그의 문하생이다. ()
- 시헌력은 서양 선교사인 아담 샬이 중심이 되어 만든 역법으로 김육 등의 노력에 의해 도입될 수 있었다.()
- 이이는 성리학을 열 개의 도표로 나타낸 성학십도를 지었다.()
- 양명학은 지행합일과 심학(心學)을 강조하는 학풍을 지향했다.()
- 이황은 기(氣)보다는 이(理)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였다.()
- 이이는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.()
- 조선 후기 홍역[마진]에 관한 치료법을 정리한 마과회통이 저술되었다. ()
- 조식은 퇴계와 함께 영남 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진다. ()

- 강화도 주변의 명승지가 위항(委巷) 문학 운동의 산실이 되었다. ()
- 조식은 광해군 때에 동방 5현으로 꼽혀 문묘에 배향되었다. ()
- 우리나라 최초로 영세를 받은 사람은 이승훈이었다. ()
- 조선 후기에는 백리척을 사용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지도가 제작되었다.()
- 조선 후기에는 우리 언어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 언문지가 편찬되었다.()
- 화엄사 각황전은 주심포 양식으로 건립되었다. ()
- 정약용은 자영농 육성을 위해 한전론의 실시를 주장하였다. ()
- 양명학파는 지행합일을 주장하며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. ()
- 정조는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를 재정비하였다. ()
- 세종 때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훈민정음운해가 간행되었다. ()
- 조선 후기에는 지전설을 수용하여 중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. ()
- 조선 후기 국어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훈민정음운해 등이 출간되었다. ()
- 동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 사상을 강조하였다.()
- 유·불·선의 주요 내용이 동학 교리의 기본 바탕이었다.()

제5장 근·현대의 문화

- '교육입국조서'는 대한제국 정부의 근대적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.()
- 고종 때 발표된 '교육입국조서'에 따라 소학교, 사범학교가 설치되었다.()
- 원산학사에서는 미국인을 고용하여 상류층 학생을 가르쳤다.()
- 원산학사에서는 산수와 국제법 등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다.()
- 1930년대에 조선 광문회는 민족 고전을 정리 간행하였으며, 주시경은 국어문법을 저술하여 국문 연구 활동에 공헌하였다. ()
- 조선어 연구회는 잡지'한글'을 발행하였다.()
- 천주교는 프랑스와 수교 이후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전개하였다.()
- "한민족1천만이, 한사람이1원씩!"은 국채보상운동의 표어였다. ()
-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는 소학교를 황국 신민 학교라는 뜻에서 국민 학교로 바꾸었다. ()
- 1930년대 이후 조선학운동은 다산 서거 기념 사업 추진을 계기로 일어났다. ()
- 1930년대 이후 조선학운동은 안재홍은 민족 문화의 확립을 위한 문화 운동을 주창하였다. ()
- 1930년대 중반에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정약용의 저서들을 정리하여 여유당전서를 편찬하였다. ()
- 박은식은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역사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. ()

- 박은식은 유교구신론을 주장하는 한편, 대동 사상을 핵심으로 대동교를 창건하였다. ()
- 박은식은 <만세보>를 발간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. ()
- 나철과 오기호는 고조선의 시조 신앙을 발전시켜 대종교를 창시하였다.()
- ‘소년’은 1908년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잡지이다.()
- 천도교 소년회는 1922년에‘어린이 날’을 제정하고 기념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1923년에는 ‘어린이’라는 잡지를 발간하였다()
- 동학은 교단 내의 친일 세력을 축출하고 천도교로 개편하였다.()
- 소년 운동은 천도교에 의해 본격화되었고 방정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.()
- <독립신문>은 문명 개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은 개신 유학자들이 대중 계몽을 위해 창간하였다. ()
- 영국인 사장에 의해 발간된 <대한 매일 신보>는 처음에는 한글과 영어를 겸용했으나, 뒤에 국한문 혼용으로 바뀌었으며,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고종 황제의 친서를 게재하였다.()
- <독립신문>은 서재필 등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발간하였다. ()
- <대한매일신보>는 하층민과 부녀자를 주된 독자층으로 삼았다. ()
- <황성신문>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게재하였다. ()
- <황성신문>은 박문국에서 간행하였으나 1년 만에 폐간되었다. ()

- 황성신문은 대한제국 때의 일간신문으로 국·한문을 혼용하였고 후에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실었다. ()
- '시일야방성대곡'이 실린 <황성신문>은 한문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주로 구독하였으며, 국한문 혼용체로 발간되었다. ()
- <한성순보>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열흘에 한 번씩 한문판으로 발행되었다. ()
- <제국신문>은 순 한글로 간행되었으며, 일반 대중을 위한 사회 계몽 기사를 많이 실었다. ()
- 신채호는 일제 시대에 진단 학회 창립과 <진단 학보> 발행에 참여하였다. ()
- 신채호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.()
- 한용운은 우리 고대사를 주체적으로 그려 낸 <조선 상고사>를 저술하였다. ()
- 민족 말살 통치시기에는 국체명징(國體明徵), 내선일체(內鮮一體), 인고단련(忍苦鍛鍊) 등 3대 교육 방침을 내세우고, 학교명칭을 처음으로 일본인 학교와 같게 하였다. ()
- 민족말살통치시기에는 동아일보,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폐간되었다.()
- 1920년대에는 종래 4년이던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, '경성 제국 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'을 반포하였다. ()